

» 여름철 흑서관리 대책

흑서기 대비 닭 환경관리 요령



조 형 환
주식회사 다르마 대표

보 통 6월 20일 전후 장마가 시작되어 7월 말경에 끝나게 되고 8월 한 달간 여름철 폭염이 진행되는데, 8월 초에 폭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 8월 초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라 고온다습으로 닭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닭은 체온이 성계기준 약 40.6~41.7℃ 정도 되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렵고 고온다습에 아주 취약하다. 따라서 여름철 고온다습한 흑서기를 만나면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음수량이 증가하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흑서기엔 적절한 사양관리 준비를 통해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관리

사계절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나 여름철에는 병아리 입식 전에 사료급이기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잔여 사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병아리 입식 후 사료급이기는 밥그릇에 남아있

는 사료량을 보며 동작 횟수를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사료급이기를 자주 돌리게 되면 밥그릇 바닥에 있는 사료는 계속 남아 있어 부패하거나 사료의 영양성분이 파괴되기 쉽다. 급수기는 10~20℃ 온도의 신선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급수기 라인에 물이 오래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직수로 자주 배출시켜 주어야 좋다. 육계 기준 보통 입식 후 일주일간은 하루 2회 이상 직수로 물을 배출시켜 주고 일주일 이후부터는 하루 1회 이상 직수로 물을 배출시켜 준다. 물론, 약물 투여로 인한 이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엔 그 상황에 맞게 직수로 물을 배출시켜 항상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 환풍기 관리

보통 처음 계사를 신축할 때는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환풍기 용량이 계산되어 설치되는데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듯하다. 즉, 환풍기 벨트 장력을 모두 확인하

여 벨트가 느슨하거나 노후된 것 같으면 가급적 벨트를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환풍기 셔터 및 안전망에 많은 먼지가 달라붙어 있는데 역시 콤프레셔 등으로 털어 주어야 한다. 환풍기는 병아리 입추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외기 온도에 맞추어 동작시키는 것이 좋다. 즉, 전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후반기에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손실될 수가 있다. 역시나 환풍기 외부에는 처마를 만들어 주어 직사광선이 축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쿨링패드 관리

닭은 보통 내부온도가 27℃를 넘어서면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계속된 온도 상승 때문에 음수량 증가, 식욕 저하, 항병력 저하 등이 발생하며 내부온도 35℃가 되면 닭의 한계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이때부터는 고온으로 인한 폐사가 다량 발생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외기 온도가 37~42℃까지 올라가고 있어 환풍기만으론 고온에 의한 닭의 폐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축사 내부로 들어오는 고온의 외부공기를 낮추어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쿨링시스템을 이용하면 외부온도를 약 5~10℃ 낮추어 축사 내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단, 축사시설이 열악한 곳은 지붕에 물 뿌리고 공기진입로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물 뿌리기를 함께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

만,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식욕 저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물 섭취량은 많아져 연변을 하게 되어 계사 환경이 나빠져 폐사가 늘고 2차 감염의 원인이 된다. 여름철엔 닭 사육마리수를 줄이는 것도 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4. 기타 사양관리 요령

아직도 개천에서 용 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현실적으로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품질 좋은 병아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입식을 하면 입식된 병아리가 어느 종계장 어느 부화장에서 관리되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보통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계장 혹은 부화장 관리 미흡, 두 번째는 자체 계사환경 관리 미흡, 세 번째는 호흡기 등에 의한 2차 감염이다. 종계장, 부화장 관리는 농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농장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물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 해



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가끔은 물 검사도 하는 것이 좋은데 물 채취는 니플라인에서 하는 것이 정확한 닭 사양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5. 마치며

여름철 폭염이 오면 사람도 버티기 쉽지 않아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닭이야 말이 필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여름철 대비 확실한 준비가 있으면 못 이겨낼 것도 없다. 축사건축물도 미흡한 부분이 없게 점검하고 내부 기계시설 또한 잘 점검하고 제품을 선

택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여 효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겠다. 건강하게 관리된 닭은 여름 폭염에 대한 피해도 적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름철엔 입추 마리수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신선하고 시원한 물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전체적인 시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때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축산은 과학이요 예술이다! 즉, 종합관리 능력을 갖추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계**

구독신청

월간양계를 받아보세요

월간양계는 대한양계협회에서 1969년부터 매달 발행하는 회원지로써 사양관리, 전망, 종계검정실적, 양계사료실적, 양계산물수입실적, 해외기술정보, 협회사업 홍보 등 각종 정보를 회원 및 양계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1. 월간양계 증정 | 대 상 : 본회 회원과 일정액 이상의 협찬자
협찬금 : 연 70,000원 이상
담당자 : 홍보국 임설희 |
| 2. 광고협찬 |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매월 1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단, 광고 데이터 구비시 20일까지 가능) |
| 3. 결제계좌 | 농협중앙회 097-01-000953
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 4. 전화번호 | 02-588-7651 |